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2. 1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재)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제1장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872년 미국 옐로우스톤 지역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아름다운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영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국립공원의 이념에 따라 140여개 국가에서 국립공원제도를 채택하여 1,400여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지리산을 제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개소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5년간의 국립공원 관리는 개발 중심적 정책과 43% 달하는 사유지, 국민들의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왔다. 성수기 일부 국립공원으로 집중되는 탐방객으로 공원의 자연자원은 훼손되고, 동식물의 자유로운 삶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전체가 도시지역으로 둘러싸여 생태적으로는 ‘고립된 섬’이지만, 도시지역에 대한 ‘녹색허파’임과 동시에 수도권 이천만 주민들의 자연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수도권 어디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와 거대한 배후도시로 연평균 탐방객이 550만에 이르고 있어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탐방객은 정상 지향 산행과 계곡 유희를 위하여 공원을 방문한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확대 도입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립공원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력과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 현장에서의 탐방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최근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의 이념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이용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방향과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탐방안내소와 자연관찰로를 조성하여 유희중심·정상등산형 이용행태를 자연체험형 이용행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와 현장 안내자 등의 부족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조건이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의 자연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자연해설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연수 및 심화교육,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

태학교 운영, 자연해설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소양과 현장 능력을 갖춘 자연해설가 양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통하여 국립공원의 이념을 널리 전파하고 국립공원에서의 자연친화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슬라이드

사진 1-1. 북한산국립공원 오봉

제2장 사업 내용

본 사업은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연수와 심화교육,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 운영, 자연해설 모니터링 진행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생태교육,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재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사업을 조율하였고 활동의 전망을 만들어갔다.

표 2-1.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전체 | ·교육기획위원회 구성 ·1~ 5차 기획회의 ·보고서 작성 |
|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 ·참가자 모집 ·교육 참가자 사전 모임 ·강사회의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연수 평가회 ·심화교육(광릉, 양재천, 수락산, 여의도샛강) |
|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 | ·준비팀 모임 ·1 ~ 8강 가을생태학교 ·‘아름다운 북한산’ 교재 제작 ·교육 평가회 |
| 자연해설 모니터링 | ·1 ~ 15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모니터링팀 평가회 |

제3장 사업 결과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참가자들은 그간 여타의 자연 공간에서 지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로, 교육의 방향도 입문 과정을 거친 자연해설가들에 대한 현장 능력 강화에 맞춰졌다. 또한 자연해설가 양성이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교육을 마친 자연해설가 중 희망자에 한하여 생태교육 자원활동가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자연해설 모니터링에 함께하도록 권유하였다.

제1절 기획회의

1. 목적

본 사업의 중심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전망을 만들어가고자 생태교육전문가이동작가자원활동 경험자진행팀으로 구성된 ‘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회의를 진행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구성들은 생태교육을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는 전문가들로 활동분야는 자연해설프로그램기획, 체험교육, 생태동화, 생물모니터링, 관계형성프로그램, 작은 산 살리기, 자연놀이 등이다.

2. 결과

1) 제 1차 기획회의

1차 기획회의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의 배경 및 의의, 조건 등을 설명하였다. 교육 신청자의 대다수가 자연해설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임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은 자연해설을 기획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여가는 능력을 고양시켜주는 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강의 전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 일시 및 방식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교육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정보 및 강사 상호간의 교육내용 조율을 위한 강사회의를 가질 것도 제안되었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 후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하였다.

2) 제 2차 기획회의

2차 기획회의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진행될 자

연해설 모니터링의 위상과 방식을 결정하였다. 자연해설 모니터링은 자연해설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 주 목적이 있으며, 주 1회 북한산국립공원내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모니터링 방식은 카운터기를 이용하여 보수를 확인하여 출발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유추하고, 자연해설을 위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기로 하였다.

연수에 참가한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서울 주변에서 자연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을 방문하여 그곳의 생태적 특징을 알아보고 경험을 나누는 심화교육 일정을 확정하였다.

3) 제 3차 기획회의

3차 기획회의에서는 1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자원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산성 지역에서 매 주 월요일 진행될 예정인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 일정을 확정하였다.

가을생태학교는 지식 전달보다는 체험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산성 주변 마을의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심화교육 일정을 확인하였다.

4) 제 4차 기획회의

4차 기획회의에서는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심화교육 결과를 공유하였다. 서울 주변의 자연을 찾아 그곳의 활동을 나누는 일은 그 나름의 의미는 있으나 타 지역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것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3년도 자원활동가 활동으로 타 지역 국립공원 탐방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가을생태학교 중간 진행과정을 보고하였다. 어린이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야 함이 강조되었고 교육결과물을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어린이들에게 결과물을 강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님에 모두 동의하였다. 날이 추워지므로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기획할 것과 이후 활동이 산에서 이루어지므로 안전에 유의할 것이 당부되었다.

자연해설 모니터링 중간 진행과정이 보고되었다. 모니터링 참가자가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진행타입에서는 메일, 전화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기로 하였다. 날이 추워지므로 모니터링은 11월말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5) 제 5차 기획회의

5차 기획회의에서는 그간의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및 심화교육의 기초를 기초교육을 마친 자연해설가를 위한 집중 연수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과 연수 후 기획 능력을 높여나기는데 맞춘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자원활동가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조직적 노력이 요구됨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가을생태학교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4시까지 북한산성지역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120여명을 교육하였음이 보고되었다. 지식 전달보다는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기획하고, 매 교육마다 교재 제작하여 활동을 집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좀더 폭 넓은 대상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자연해설 모니터링은 북한산국립공원의 15개 주요등산로를 모니터링하여 이후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참가자들에게는 현장교육의 역할을 하겠다고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다른 국립공원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기로 하였고 2003년 활동계획도 수립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2절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및 심화교육

1.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본 사업의 교육 참가자들은 그간 여타의 자연 공간에서 지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로, 교육의 방향도 입문 과정을 거친 자연해설가들에 대한 현장 능력 강화에 맞춰졌다.

1) 연수 참가자 사전 모임

교육 신청자 사전 모임에서는 자연해설가 모델 연수 프로그램(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 교육 일정을 결정하였다.

표 3-1. 자연해설가 모델 연수 프로그램(안)

| 자연해설가 모델 연수 프로그램(안) <강의> : 강의 중심의 교육 <활동> : 체험활동중심의 교육 | |
|--|---|
| 단계 | 프로그램 및 내용 |
| 1 | <강의> 자연해설의 의미 및 필요성 <활동> 현장 자연해설 실태 탐방 <강의> 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의 지침 자연해설의 의미와 필요성과 자연해설 현장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살펴본 후 여기서의 시사점과 우리의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의 구성 원칙에 대해 고려했다. |
| 2 | <활동> 관계형성활동 <활동> 자기표현훈련 <활동> 내가 자연과 만난 첫 경험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인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활동을 직접 체험을 통해 습득한 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해설 진행을 위한 자연해설가의 자기표현력을 향상하며 자연해설에서 강조하는 경이로운 감성에 대한 의미 파악 |
| 3 | <활동> 눈색깔이 다르면 다르게 보일까 ? <활동> 점심은 어디서 오지 ? 인간의 자연인식 과정과 자연과 우리의 생활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상체험을 통해 이해하고 자연해설의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매체를 수집,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활동> 자연해설을 위한 場 만들기 자연해설을 위해 어떤 장소들이 활용 가능하며, 어떤 기회성과 제한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장(場)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선택을 하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자연해설 場에 대한 관심과 결정과정, 선호 등을 맥락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관심과 가치의 이해와 개발에 대한 나의 입장정리, 대안제시훈련을 역할놀이와 간접체험을 통해 자기화 함 |
| 4 | <활동> 숲의 생태와 가치 <활동> 흙의 생태 육상생태계 종합판인 숲의 생태적 연결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생태의 기반인 흙의 기능과 생태에 대해 고찰 |
| 5 | <강의> 집단 지도론(Group Work) 및 나의 Leadership은 ? <활동> 집단지도 실습 활동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도자의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개별화, 지위·역할 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형별 집단지도 기법 실습 |
| 6 | <활동> 자연놀이 자연해설가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 많지 않더라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자연친화놀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자연생태계를 이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 및 맥락 이해 |
| 7 | <강의>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에서 평가 <과제> 자연해설 프로그램 개발 자연해설의 프로그램 기획/계획/준비/진행/평가 등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수자가 다양한 주제 속에서 프로그램을 연구,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한다. 모듈별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거나 혹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각 모듈별로 활동의 목적, 순서, 준비물 등을 논의하고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 포함 |
| 8 | <실습> 자연해설 프로그램 시연 및 평가 모듈별로 직접 교육대상에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다른 연수자들은 참관한 후 같이 평가 <정리> 평가 |

교육 참가자들이 주 1회 교육하는 안보다는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안을 선호하였고, 참가자들이 개인 일정 조정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논의되어 7월 22~23일, 29~30일로 교육 일정을 잡았다.

2) 강사회의

강사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공유하고 연수기획안에 근거하여 강사 각자의 역할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수가 자연해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함과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이 유도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표 3-2. 연수 참가자 분석

| 구분 | 성별 | | 연령 | | | | 직업 | | | | | 계 |
|----|----|----|-----|-----|-----|-----|----|----|-----|-----------|-------------|----|
| | 남 | 여 | 20대 | 30대 | 40대 | 60대 | 주부 | 학생 | 직장인 | 퇴직 공무원 | 시민단체 활동가 | |
| 명 | 8 | 10 | 4 | 12 | 1 | 1 | 6 | 3 | 5 | 1 | 3 | 18 |

또한 참가자 사전 모임에서 집중 연수 방식을 선택된 만큼 강의 자체가 지루하지 않도록 강의와 시연, 실습 등이 시의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일정을 일부 조정하였다.

3) 연수 결과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된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에는 강의와 실습, 답사, 시연 등의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다. 연수 장소는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에 위치한 탐방안내소와 그 주변, 그리고 정릉지역 자연관찰로에서 진행되었다.

표 3-3. 연수 개괄 분석

| 구분 | 일 시 | 주 제 | 강 사 | 장 소 |
|----|------------------|------------------------------------|-----|------------------|
| 1강 | 7/22 오전 10시~ | [강의]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 황선미 | 정릉탐방안내소 |
| 2강 | 7/22 오전 11시 30분~ | [실습]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 황선미 | 정릉탐방안내소 주변 |
| 3강 | 7/23 오전 10시~ | [강의 및 실습] 자연해설을 위한 장 만들기 | 윤주옥 | 정릉탐방안내소 및 탐방로 |
| 4강 | 7/29 오전 9시~ | [강의] 국립공원 자연해설의 특징과 중요성 | 서유희 | 정릉탐방안내소 |
| 5강 | 7/29 오전 10시 30분~ | [답사 및 시연] 현장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답사 및 시연 | 이봉현 | 정릉지구 자연관찰로 |
| 6강 | 7/29 오후 1시~ | [강의] 유형별 자연해설 프로그램 | 지성희 | 정릉탐방안내소 |
| 7강 | 7/29 오후 2시~ | [강의] 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 | 서유희 | 정릉탐방안내소 |
| 8강 | 7/29 오후 4시~ | [강의 및 실습] 효과적인 자연해설을 위한 기법 | 이봉현 | 정릉탐방안내소 |
| 9강 | 7/30 오전 10시~ | [실습] 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 및 시연 | 서유희 | 정릉지구 자연관찰로 |

교육 신청자는 18명이었으나 평균 참여자는 15.5명이었다. 참가자들은 평균 86%의 강의 참여율을 기록하여 강의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표 3-4. 연수 참석자 수

| 구분 | 신청자 | 1강 | 2강 | 3강 | 4강 | 5강 | 6강 | 7강 | 8강 | 9강 | 평균 |
|----|-----|----|----|----|----|----|----|----|----|----|------|
| 명 | 18 | 14 | 14 | 16 | 16 | 16 | 16 | 16 | 16 | 13 | 15.5 |

(1) 제 1강 [강의]집단지도와 자기표현

7월 22일 첫 강의 주제는 ‘집단지도와 자기표현’으로 정릉 탐방안내소에서 진행되었다. 강의 전 연수 전체일정을 설명하고, 연수를 주최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유정칠 대표의 인사말을 들었다.

강의는 참가자들이 자연물에 비유하는 방식으로 각자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어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상호작용, 자기표현의 원리와 적용, 집단에서 대인관계기법 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의 후 공동체 놀이를 통하여 참가자들끼리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동에서 이

루어졌던 청소년 대상 활동 VOD를 상영하였다.

1-0716

1-0718

사진 3-1.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강의

사진 3-2. 둘러앉아 자기소개법 실습

(2) 제 2장 [실습]집단지도와 자기표현

2장은 1장에서 강의된 내용을 실습하는 시간으로 두 모둠으로 나뉘어 각각 모둠의 이름과 구호, 노래를 만들고 발표하였다.

자연물을 이용하여 모둠별 상징물을 만들고, 그 상징물의 의미를 이야기하였다. 참가자들의 호응도로 우수작을 선정하고 박수를 선물한 뒤, 이용한 자연물은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였다. ‘자연해설가’를 활용한 5행시를 만들어 그 느낌을 공유하였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서로를 더욱 친밀하게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함을 공유하였다. 공동체 활동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수록된 책자가 소개하였다.

1-0733

1-0731

사진 3-3.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야외실습

사진 3-4. 모둠 소개

(3) 제 3강 [실습]자연해설을 위한 장 만들기

이틀째 되는 날 오전 10시부터 3강을 진행하였다. 강의는 자연해설에서 모니터링의 중요성 및 방식을 설명하고 가상적 상황에서의 모니터링 방법을 시연하였다. 계획은 정릉 탐방안내소 주변 및 자연관찰로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폭우로 국립공원 입장이 불가능하여 모니터링은 추후 모듈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모니터링 방법은 2인이 1조로 짝을 정하고 정릉 자연관찰로를 중심으로 준비한 지도에 자연해설과 관련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방법이었다. 모니터링 세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등산로를 따라 20보 지점에 점 찍기
- 20보 지점 주변의 자연해설 요소 관찰하기
- 등산로 주변 자연해설의 조건, 느낌 확인하기
- 등산로 주변 시설물(해설판의 위치 등) 위치와 훼손정도 조사하기
- 계곡의 접근성 확인하기
- 계곡의 동선 등 상황 표시하기
- 주변 평지 유무 및 평지상황 표시하기

그림 3-1. 정릉 탕방로에서 수행한 모둠별 자연해설 모니터링 결과 사례

(4) 제 4강 [강의]국립공원 자연해설의 특징과 중요성

7월 29일에 4강을 진행하였다. 순서는 자유토론→국립공원 자연해설 이론→경험자들의 이야기 순이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국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국립공원 자연해설의 특징과 추진방향, 소양있는 자연해설가

양성의 중요성, 다양한 자연해설 장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주체들과의 연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자연해설에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이 자연해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자연해설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 등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5) 제 5강 [강의]현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답사 및 시연

정릉지구 자연관찰로에 설치된 안내판을 활용한 시연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참가자들과 정릉지역 자연관찰로를 답사하면서 국립공원에 자연관찰로를 조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고, 정릉지역 자연관찰로에 설치된 안내판들을 분석하였다.

강사가 ‘안내판을 이용한 자연해설’과 ‘안내판이 없는 곳에서의 자연해설’을 시연하였고, 간이안내판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6) 제 6강 [강의]유형별 자연해설 프로그램

여섯 번째 강의는 세부영역별 자연해설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고 자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었다.

유형별 자연해설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들을 살펴본 후, 세부 영역별 프로그램의 유형을 강의하였다.

두 번째로는, 근래 들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자원활동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원활동의 사회적 가치, 자원활동의 원칙, 자원활동의 절차에 대해 토론한 뒤, 지역에서의 활동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길동자연생태공원에서 자원활동 사례를 기록한 슬라이드를 상영하여 그 공감대를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다.

(7) 제 7강 [강의]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

7강은 자연해설가의 전망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하면서 시작하였다.

이번 강의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다. 강의의 내용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로그램의 이해와 프로그램 기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속에서 자연해설가의 기본자세 등이 설명되었고 실제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들이 논의되었다. 단계별

세부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기획의 제1단계 / 단서를 찾아라
- 기획의 제2단계 / 정보를 수집하라 그리고 분석하라
- 기획의 제3단계 / 방향을 설정하라
- 기획의 제4단계 /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 기획의 제5단계 /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 기획의 제6단계 /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 기획의 제7단계 / 재투자가 있어야 한다

1-0711

1-0740

사진 3-5. 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 강의

사진 3-6. 연수에 집중하는 참가자들

(8) 제 8강 [강의 및 실습]효과적인 자연해설을 위한 기법

지도자에 대해 자유토론을 실시하였다. 지도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지도자상과 바람직한 지도자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본 강의에서는 가이드형 자연해설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가이드형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구성해보았다. 실습시간에는 효과적인 자연해설을 위한 기법들을 살펴본 후, 사전에 준비해야 할(준비물품을 포함하여) 사항들을 체크해보았다.

9강에서 진행될 모듈별 시연에 대비하여 3강에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모듈원끼리 역할을 분담하고 해설 포인트를 설정하여 연습을 하였다.

1-0743

1-0747

사진 3-7.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내부논의

사진 3-8. 기획을 위한 현장 답사와 조율

(9) 제 9강 [실습]현장 자연해설 프로그램 및 시연

아홉 번째 강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정릉지구 자연관찰로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여 현장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3강에서 수행한 정릉지역 자연관찰로 모니터링을 근거로 기획된 프로그램을 시연하였다. 각 모듈별로 주어지는 상황은 각기 다르다. 가상된 상황으로 제1모듈은 장애인들에게 자연해설을 하는 상황, 제2모듈은 자연해설 당일 비가 오는 상황이 설정되었다. 모듈별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실행모듈과 참여모듈로 나누어 시연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였다.

1-0756

1-0754

사진 3-9. 자연해설 프로그램 시연 방법 설명

사진 3-10. 모듈별 자연해설 프로그램 시연

마무리로 자연해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소모임 등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점과 프로그램 기획시 일정표 작성을 우선하기 보다는 사전 답사와 모니터링 결과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4) 평가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는 평가회를 통한 평가와 설문
을 통한 평가로 나누어 서술한다.

평가회에서 참가자들은 그간 체계적이지 못하게 진행되었던 자연해설 활동이 정리된 것 같으며,
현장교육시 자연해설가 서로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근 자연해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초교육 프로그램이거나 개별 중
에 대한 연구 수준이다. 기초교육을 받은 자연해설가 지망생들을 중급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
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연수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보여진다.

이후 참가자들은 정릉 탐방안내소에 있는 자원활동가방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고, 타 국립공원
탐방과 함께 다른 국립공원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과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평가를 위해 기획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립공원에서의 자연해설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은 총 15명중 ‘아주 많다’와 ‘많다’가 각각
7명과 5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자연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교
육과정에도 참가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이 자연해설에 관심을 갖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다양하다. 한 참가자는 90년대 이후 여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적인 유흥문화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자연해설을 배우고 실행하기까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점도 작용한다고 한다. 또, 자기의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가능하
는 점, 그리고 숲과 친해지면서 건강에도 좋고, 자기수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서술하였다. 또다
른 참가자는 사회의 일원으로 무엇인가 다른 이들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중이었는데, 우연히
북한산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한다. 평생 배우고 봉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고 싶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이 자연해설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 5명, ‘1년 미만’이 3명, ‘2년
미만’이 5명으로 거의가 2년 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여유로움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 물론 3년 이상된 분도 2명이나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연해설과 관련한 교육을 15명 전원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교육에 참가한
횟수는 3회 미만이 14명으로 나타나, 아직은 이런 자연해설 관련 교육이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마
련되어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은 단체는 숲해설가 협회, 여성환
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도봉시민회, 서울여성민우회 등 환경, 시민단체가 주종을 이
뤘, 아직은 정부기구나 기업체 등과 관련한 자연교육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수가 참가자들의 자연해설 활동 및 전망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였다. 연수에서 수행한 단위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평가해 보았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특히 ‘집단지도와 자기표현’ 교육에 대해 참가자 대부분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특기할 만 하다. 이는 참가자들이 자연해설을 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지식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통솔하여 이끌어가는 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다.

연수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연수의 기간과 내용이 짧았다고 평가하면서, 각 연수별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보강하여 기간은 다소 길더라도 충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어린이 생태교육의 현황이나 방법론, 모니터링 기법, 청소년의 심리 및 그들과의 대화기법, 자연해설의 장기적 전망과 관련된 강좌들이 더욱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자연해설에 관심을 갖게 된 기간의 단기성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열의와 함께 참가자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즉, 초보 수준의 강좌를 벗어나 그동안의 연구 성과 및 외국과 국내의 풍부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할 만큼 충실한 자료들을 이제 꼭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참가자들은 연수 이후 국립공원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자연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인가를 묻은 항목에 15명 전원이 그렇다고 답하여, 연수가 연수로서 끝나지 않고 보다 많은 현장에서 의 생생한 자연해설로 살아 퍼져 나가리라는 것을 밝은 청사진으로 보여주었다.

2. 심화교육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연해설가에게 요구되는 것이 단순한 실행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준비 및 실행, 평가의 전 과정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심화교육에서는 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근교의 자연학습장을 찾아 생태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학교 개강, 휴가의 어려움 등으로 연수 참가자 중 선생님, 학생, 직장인 등은 심화교육 참여가 어려웠다. 4강의 심화교육에는 총 35명이 참가하였다.

표 3-5. 심화교육 개괄 분석

| 구분 | 일시 | 장 소 | 강사 | 참가자 수 |
|----|------|----------|-----|-------|
| 1강 | 9/6 | 광릉 국립수목원 | 이봉현 | 9 |
| 2강 | 9/10 | 양재천 | 지성희 | 9 |
| 3강 | 9/17 | 수락산 | 지성희 | 8 |
| 4강 | 9/24 | 여의도샛강 | 강말숙 | 9 |
| 계 | | | | 35 |

1) 광릉 국립수목원 탐방

광릉 국립수목원 탐방안내소를 방문하여 전시물을 둘러보고, 광릉수목원의 역사 및 구성, 생태적 중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산림욕장은 만나는 숲, 체력단련의 숲, 시가 있는 숲, 명상하는 숲, 독서하는 숲, 헤어지는 숲, 웅달샘 등이 마련되어 있어 체험과 교육을 위한 좋은 장소였다. 또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찰원 이외에 수목원을 둘러싸고 있는 숲은 아주 훌륭한 천연수목원이다. 서어나무 숲을 비롯하여 극상림에 가까운 숲이 있으며 그 숲에는 갖가지 동식물 등이 살고 있다고 한다.

수목원에는 식물 이용 또는 생육특성에 맞게 구분한 16개의 전문 관찰원이 있다. 잎, 꽃, 수피 및 수형이 좋아 관상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모아 아름다운 정원처럼 배치하고 전시한 관상수원, 다른 물건을 감고 올라가거나 흡착근을 만들어 벽 등을 타고 올라 갈 수 있는 덩굴성 나무들을 모두 모아 전시한 만목원, 특별히 꽃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모아 전시한 화목원, 작은키나무들을 비슷한 식물끼리 모아 놓아 비교 연구하기에 적합한 관목원, 촉각·후각 등 눈이 아닌 인체의 다른 감각을 통해 식물을 배울 수 있는 맹인식물원, 바늘잎나무 즉 침엽수만을 모아 놓은 침엽수원, 낙엽활엽수를 모아 놓은 활엽수원 등 다양한 식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릉수목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 나무 찾기, 나무로 상자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 공유하였다.

2) 양재천 탐방

영동2~3교 구간의 자전거길을 따라 이동하며 인공으로 식재한 풀과 자연발생한 풀을 구분하여 살펴해보았다.

양재천에 대해 참가자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95년부터 하천 준설, 오염으로 찌든 흙을 파내고 각종 정화시설을 갖추어 2, 3급수로 수질이 개선되었고, 습지식물을 심고 자전거길과 식생호완.

생태관찰원, 자연학습원 등을 마련하여 생태공원화 하였다고 한다.

양재천의 수질정화방법과 관리상황을 알아보았다. 하천의 오염물질이 강바닥의 자갈과 부딪혀 가라앉게 되고 자갈 표면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를 빨아들여 분해하는 자연정화방식을 이용한다고 한다.

하천은 생활의 근거리 영역에서 치수로서의 가치외에도 수생식물, 물고기, 버드나무, 날아드는 철새 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이다. 양재천 탐방을 통하여 양재천 오염, 복원을 위한 노력, 복원에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는 양재천, 이를 통하여 시민이 누리는 혜택 등을 이야기하였다.

버드나무숲길을 따라 이동하며 도심생태에서 하천이 가지는 의미와 집 주변의 하천과 양재천을 비교하고, 개선방법을 이야기하였다.

천리안

슬라이드

사진 3-11. 광릉수목원 탐방

사진 3-12. 양재천 전경

3) 수락산 탐방

산언저리 샛길을 따라 걸으며 탐방을 진행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집 주변의 녹지, 수락산에 사는 식물과 숲의 구조 등을 비교하였다.

풀의 옛 쓰임새를 살펴보았다. 예전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했던 풀들은 먹을거리로서, 질병치제로서 그리고 생활도구로서 나뭇의 쓰임새와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그만큼 들풀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각각의 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인간생활 속에 위치한 연관성과 소중함을 이해하였다.

풀과 나무의 구분법, 한해살이두해살이여러해살이풀의 예를 확인하고 잡초와 작물의 차이, 외래종과 귀화종의 구분, 허브의 의미 등도 알 수 있었다.

주변의 식물들을 선조들이 민간에서 어떻게 활용했는가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개망초는 미국에서 온 번식력 강한 외래식물이며 한방에서 외상,지혈제로 쓰였고, 쑥부쟁이는 흔히 들국화라 부르며 옛날 쑥을 잘 캐던 효녀에 얽힌 전설을 들었다. 질경이는 수레바퀴가 구르는 길에서 자라 밝히면서

잘 자란다 하여 차전초라 하며 어린 잎은 식용, 약용으로 쓰고 최근 간염에 좋다하여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역새는 잎가장자리가 칼날같이 살을 베기 쉬워 역살, 으악새라 부르며 이뇨, 해열, 감기치료에 쓰인다. 짚신나물은 잎새무늬가 짚신모양이라 이름이 붙여졌고 식용, 약용으로 쓰인다.

참나무에는 6가지 종류가 있으며 잎모양과 잎자루, 수피의 특징으로 구분하고 구황식물이라 할 만큼 도토리도 훌륭한 식량이었다. 산초나무는 잎을 비비면 독특한 향이 나며 음식에 넣어 향신료로 쓰인다.

기타 뽕감과 꿀을 제공하는 아까시나무, 음식이름을 딴 국수나무, 잎이 보드라운 털팽나무 등 각자가 알고 있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였다.

4) 여의도샨갯강 탐방

여의도샨갯강 탐방에서는 공원 관찰로를 따라 주변의 식물을 관찰하며 놀이의 소재를 찾아보았으며,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감 만들기 실습을 진행하였다.

손을 이용한 풀피리 불기, 갈대 잎을 이용한 피리, 줄기가 빈 식물을 가지고 피리 불기 등을 하였다. 또한 갈대 잎으로 바람개비 만들기, 갈대 잎으로 물레방아 접기, 나뭇잎 배 만들기, 칩닝쿨 안경 만들기 등도 하였다.

생태교육에서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학습방법임을 알 수 있었으나 자칫 놀이만이 강조되며 동식물 훼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문안내소로 이동하여 전시물을 둘러보았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사진 3-13. 수락산의 참나무숲

사진 3-14. 여의도샨갯강 전경

제3절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 운영

1. 목적 및 개요

최근 시민단체를 필두로 하여 정부, 학교, 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 등 많은 곳에서 생태교육현장체험 등의 이름으로 자연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연에서의 직접 체험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자연에서의 활동은 특별한 교육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더라도 느끼고 즐기는 것 그 자체로서도 교육 효과가 높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계곡바위 등의 경관과 함께 다양한 식물들을 접할 수 있어 현장체험 공간으로 적당하다.

본 사업에서는 연수를 마친 자연해설가 중 여건이 가능한 자원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생태학교를 운영하였다. 생태학교 운영을 위해 생태교육전문가·자연해설 자원활동가진행팀으로 구성된 준비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는 ‘아름다운 북한산’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전제로 하여 매 회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교육 기조는 현장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2. 결과

2002년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북한산성지역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에는 총 12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며,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북한산성 근처에 위치한 북한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6. 가을생태학교 개괄 분석

| 회수 | 일시 | 주 제 | 진행자 | 장 소 | 참가자 수 |
|----|-------|----------------|-----|-------------|-------|
| 1강 | 9/9 | 열매와 친구하기 | 이혜영 | 북한산성매표소 주변 | 10 |
| 2강 | 9/16 | 물 웅덩이를 찾아서 | 김숙경 | 북한산성 마을 초입 | 14 |
| 3강 | 9/27 | 가을벌자리를 찾아서 | 윤주옥 | 대서문 근처 광장 | 45 |
| 4강 | 9/30 | 물 속 곤충 관찰하기 | 이혜영 | 북한산성 계곡 | 10 |
| 5강 | 10/14 | 가을꽃에 이름표를 달아주기 | 김숙경 | 북한산성 등산로 초입 | 12 |
| 6강 | 10/21 | 북한산성의 역사 | 윤주옥 | 북한산성 대서문 | 9 |
| 7강 | 10/28 | 거미를 찾아서 | 김석우 | 북한산초등학교 주변 | 11 |
| 8강 | 11/4 | 북한산국립공원 오르기 | 윤주옥 | 북한산국립공원 의상봉 | 9 |
| 계 | | | | | 120 |

가을생태학교는 그 기초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설정하고, 어린이들과 자연속에서 관찰하고 느끼는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현장체험활동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다.

매회 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8권의 교재를 만들었다. 교재는 교육 주제에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연결하기, 나는 누구일까요, 만들기 등)을 활용하였으며, 공통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설명과 국립공원 이용 방법, 친구들과 활동나누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재는 어린이들과 활동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그림 3-2. 어린이가 그린 물웅덩이의 애기부들

표 3-7. 가을생태학교 교재 주제 및 내용

| 구분 | 주 제 | 중심 내용 |
|----|----------------------|--|
| 1강 | 열매와 친구하기 | ·열매는 어떻게 생길까 ·열매를 찾아봅시다 ·씨가 퍼지는 여러 방법 ·연결해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
| 2강 | 물 웅덩이를 찾아서 | ·물웅덩이에는 어떤 풀들이 살고 있을까 ·물 웅덩이를 찾아서 ·풀을 이용한 만들기 ·나는 누구일까요? |
| 3강 | 가을별자리를 찾아서 | ·별 이야기 ·북극성 만나기 ·별자리는 ·가을별자리 찾아보기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만드는 별자리와 별자리이야기 |
| 4강 | 물 속 곤충 관찰하기 | ·물 속 곤충이야기 ·어떤 생물이 살 수 있을까 ·관찰해 봅시다. ·수서곤충의 호흡법 ·나는 누구일까요? ·북한산성 계곡 물의 맑기 측정하기 |
| 5강 | 가을꽃에 이름표를 달아주기 | ·나무와 풀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을꽃의 왕 들국화 ·주변의 식물을 관찰합니다 ·재미있는 꽃이름 알아보기 ·꽃의 이름표를 만들자 ·나는 누구일까요? |
| 6강 | 북한산성의 역사 | ·북한산국립공원의 역사 ·풍수지리로 본 북한산 ·북한산성 알아보기 ·나는 누구일까요? ·돌이나 나무에 새겨진 우리나라 전통문양 |
| 7강 | 거미를 찾아서 | ·거미의 생김새 ·거미 ○, × 퀴즈 ·거미줄의 비밀 1, 2 ·거미가 그물 치는 순서 ·나는 누구일까요? |
| 8강 | 북한산국립공원 오르기 | ·북한산의 바위에 대하여 ·바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풍화작용이란 ·돌이 병을 치료할까요? |
| 기타 | 1~8강 교재에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 |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알송달송 퀴즈 ·북한산국립공원 이야기 ·친구들과 활동나누기 ·가을생태학교 안내 |

활동 후 어린이들은 활동에서의 느낌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였다.

1) 제 1강 열매와 친구하기

2002년 9월 9일 북한산성 매표소 주변에서 ‘열매와 친구하기’란 주제로 가을생태학교 1강이 진행되었다.

활동은 어린이들을 모둠으로 나누고, 모둠별로 바구니를 나눠주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열매를 모아오도록 하였다. 꽃에서 열매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식물들이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린이들이 주워온 열매의 종류와 특징 등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산에서 나는 열매는 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먹이임을 인식하고 어린이들이 주워온 열매를 원래의 위치에 갖다놓도록 하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2-10

2-9

사진 3-15. 바구니에 주변의 열매모으기

사진 3-16. 모아온 열매를 관찰하고 그림그리기

2) 제 2강 물 웅덩이를 찾아서

모듬을 나누어 북한산성 초입의 마을 주변에서 조그마한 물웅덩이들을 관찰하였다. 팔각정 입구에는 기름띠가 보였으나 식물들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특히, 버드나무가 많이 보였고 웅덩이 위에는 소금쟁이도 보였다. 나무농장 안의 물웅덩이에서는 아기부들, 미나리, 고마리 등이 관찰되었다.

마을 입구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 있었는데, 주변에 주목과 향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마을 입구의 인공 연못으로 이동하며 마을 초입에서 돼지우리를 발견하고 돼지에게 식물을 뜯어 먹여보았다. 인공 연못 주변의 주목 열매를 아이들이 따먹어보기도 하였다. 개천에는 백로들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들로 하여금 물웅덩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식물을 그리도록 하였다.

사진 3-17. 물웅덩이 주변의 나무 관찰하기

사진 3-18. 인공연못 관찰 후 그림그리기

3) 제 3강 가을별자리를 찾아서

북한산초등학교 2학년 45명을 대상으로 ‘가을별자리’에 대해서 체험하고 배울 기회를 가졌다. 북한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별자리의 유래 및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종류등을 설명한 뒤, 모둠을 나눠 대서문 근처 공터로 이동하여 별자리를 관찰하였다.

아이들을 모두 공터에 눕게 한 뒤, 눈을 감고 별과 얘기해 보도록 하였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날이 맑지 않아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카시오페이아, 카페우스 등의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별들을 이어 자기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도시에서보다 산이나 시골에서 별이 잘 보이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산에서 내려와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관찰기록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기만의 별자리를 그려보게 한 후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가을별자리는 뚜렷하지 않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림 3-3. 내가 만드는 별자리 중 어린이가 그린 '행복의 여우자리'

4) 제 4강 물 속 곤충 관찰하기

9월의 마지막날, 북한산성계곡에서 물 속 곤충 관찰하기를 주제로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였다. 상류(음식점이 많은 곳), 중류(음식점이 적고 물이 많은 곳), 하류(매포소 입구 근처) 등 3곳을 관찰지점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관찰은 모둠별로 진행하고 발견한 곤충 및 곤충집을 투명한 그릇에 담도록 하였다.

상류에서는 잠자리 유충과 실지렁이가 발견되었다. 중류에서는 민물고동, 버들치가 많이 발견되었다. 하류에서는 날도래집, 민물고동, 피라미 등이 발견되었다.

상류, 중류, 하류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각기 다른 이유는 음식점과 음식점에서 내보내는 더러운 물, 그리고 계곡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사람과 생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였다.

아이들은 날도래집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관찰한 곤충들을 그림과 동시에 표현하면서 교육을 마쳤다.

2-15

2-20

사진 3-19. 북한산성계곡 하류 관찰

사진 3-20. 계곡에서 관찰한 날도래집 등 그리기

5) 제 5강 가을꽃에 이름표를 달아주기

북한산성 등산로 초입에서 ‘가을꽃에 이름표 달아주기’라는 주제로 생태학교를 진행하였다.

산국, 개나리, 별꽃 등을 관찰하였고, 범부채, 천궁 등의 열매도 보았다. 관찰한 식물이나 꽃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하였다. 꽃과 열매를 촬영할 때 그 식물의 특징이 정확히 드러내도록 촬영하는 것이 이후 그 식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을 설명하였다.

각자가 관찰하고 촬영한 식물을 식물도감에서 찾아보고 도감을 통해 식물의 특징을 역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관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름표를 만들면서 교육을 마무리 지었다.

2-30

2-26

사진 3-21. 디지털카메라로 사진 촬영

사진 3-22. 도감에서 관찰한 식물 찾아보기

6) 제 6강 북한산성의 역사

10월 21일에는 북한산성에 올라가 북한산국립공원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북한산성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산성에 오르면서 길 양옆의 참나무들을 관찰하였고, 냄새나는 식물인

누리장나무, 산초나무, 배초향, 산박하 등의 향기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북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주고, 대서문과 성곽 주변의 전통적인 한국 문양을 찾아보았다. 찾은 문양에 습자지를 대고 그려보고, 글씨는 탁본을 떠보았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이 자연과 어떻게 닮았는지 아이들이 느끼도록 하였다.

그림 3-4. 어린이가 본뜬 대서문에 그려져 있는 우리나라 문양

7) 제 7장 거미를 찾아서

북한산 초등학교 주변에서 ‘거미’를 찾아보고 관찰하였다.

건물 주변에서 거미나 거미가 낳아놓은 알을 관찰하였다. 관찰과정에서 나방의 알집도 발견하였다. 예전에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있는 여러 곤충들의 사체도 관찰하였다. 거미와 곤충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미와 외국에 살지만 흥미로운 거미들을 사진을 통해 배워보았다.

관찰한 거미와 거미알집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교재를 이용하여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림 3-5. 어린이의 '거미와 거미알' 그림

사진 3-23. 거미를 관찰하고 있는 어린이들

8) 제 8강 북한산국립공원 오르기

11월 초순인 4일에 북한산국립공원에 올랐다. 북한산국립공원 의상봉에 오르면서 까마귀, 딱새, 까치, 박새 등을 관찰하였고, 바위를 오르며 산에서는 서로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에 있는 바위들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고, 멀리 여러 건물들과 주변의 산과 들 등을 지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식물들이 자유롭게 살기위한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체득할 수 있게 하였다.

산에서 본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고, 교재를 이용하여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제4절 자연해설 모니터링

1. 목적 및 개요

자연은 쉽 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해석을 고정화되어 있는 지식에 의존하게 된다면 현장중심의 체험에 실패하게 된다. 자연해설을 하기 전 답사와 구체적 모니터링을 첫 번째 실행과제로 제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현장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해설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사전 답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상의 동식물상 및 생태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당일 자연해설에 활용될 학습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활동을 통해서만 자연해설 기본 지침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자연해설은 사전 답사와 모니터링에서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사업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등산로에 대한 자연해설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해설 기초 자료

를 축적하고, 모니터링에 참가자들이 자연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 적응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 평가회와 기획회의에서 자연해설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니터링의 개괄적인 방법이 제안되었다. 물론 구체적인 실행 방식 및 현장 진행자 등은 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자연해설 모니터링은 대상지의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으뜸 진행자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발견한 자연해설 요소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록장(표 3-8)에 기록하였다. 거리 측정을 위해 카운터기를 활용하였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특이한 생태적 환경과 동식물은 사진 촬영하였다.

표 3-8. 모니터링 기록장

등산로 모니터링 기록표

| | | | |
|-------------|---|------|------|
| | | 기록자 | |
| 분 야 | <input type="checkbox"/> 자연해설 요소 <input type="checkbox"/> 시설 및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 타 *해당 분야에 √표 하세요. | | |
| 일 시 | 2002년 8월 일 | 날 씨 | |
| 시작 시간 | | 끝 시간 | |
| 시작 지점 | | 끝 지점 | |
| 참가자 | | | |
| 모니터링 결 과 | 길이 (보수) | 관찰내용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결과

자연해설 모니터링은 2002년 8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15개 등산로에서 총 75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표 3-9. 자연해설 모니터링 현황

| 회수 | 일시 | 모니터링 대상 지역 | 참가자 수 | 으뜸 진행자 |
|----|-------|-------------------------------|-------|--------|
| 1 | 8/28 | 삼거리쉼터~ 승가사 | 7 | 김석우 |
| 2 | 9/1 | 비봉매표소~ 승가봉 | 5 | 이봉현 |
| 3 | 9/4 | 소귀천계곡~ 대동문 | 7 | 김석우 |
| 4 | 9/11 | 백운매표소~ 하루재~ 백운대피소 | 5 | 김석우 |
| 5 | 9/18 | 도선사~ 용암문~ 백운대피소 | 4 | 김석우 |
| 6 | 9/25 | 정릉매표소~ 정릉계곡~ 보국문~ 칼바위능선 | 5 | 김숙경 |
| 7 | 10/2 | 형제봉매표소~형제봉능선~대성문 ~성능~청수천 밑 | 5 | 김석우 |
| 8 | 10/9 | 아카데미하우스매표소~구천계곡~넓적바위 | 5 | 김석우 |
| 9 | 10/16 | 냉골매표소~내원사~정릉매표소 | 5 | 김석우 |
| 10 | 10/23 | 화계사매표소~빨래골매표소 | 6 | 김석우 |
| 11 | 10/30 | 진관사매표소~진관사계곡~비봉능선~탕춘대능선~탕춘매표소 | 4 | 김석우 |
| 12 | 11/6 | 도봉매표소~보문능선~우이암~무수골매표소 | 3 | 김석우 |
| 13 | 11/10 | 원도봉매표소~원도봉계곡~포대능선 ~망월사매표소 | 6 | 이봉현 |
| 14 | 11/13 | 회룡사매표소~송추계곡~송추분호~오봉매표소입구 | 4 | 김석우 |
| 15 | 11/20 | 북한산성매표소~북한산성계곡~보국문 ~정릉계곡 | 4 | 김석우 |
| 계 | | | 75 | |

자연해설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등산로가 자연해설 장소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연해설을 기획할 때 어떠한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가한 자원활동가들은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현장 활동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1) 제 1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1차 자연해설 모니터링은 2002년 8월 28일 구기계곡 ‘삼거리쉼터~ 승가사’ 등산로에서 진행되었다.

이 등산로에서는 나무이름이 흥미로운 화살나무노린재나무생강나무물오리나무붉나무 등이 살고 있었으며, 봄을 알리는 귀룽나무도 볼 수 있었다.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 종류들이 있어 참나

무의 여러 종류와 쓰임새를 설명하기에 적당하였으며, 붉나무의 꽃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1764 보에 위치한 산벚나무는 한반도 모양이었다.

이 등산로는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해설거리가 있어 해설을 위한 적절한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나무와 야생조류를 볼 수 있었다.

2) 제 2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2차 모니터링은 9월의 첫째 날 비봉능선에서 진행하였다. 비봉매표소에서 승가봉까지 등산로를 따라가며 참가자 각자가 발견한 자연해설 요소를 설명하고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생태적으로 유의할 만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은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26보 되는 지점에서 세발버섯을 발견하였고 참빗살나무의 붉은색 열매도 관찰할 수 있었다. 꽃며느리밥풀꽃과 쭉부쟁이의 보랏빛 꽃을 관찰하였다.

이 구간은 꽃 뿐 아니라 버섯도 볼 수 있어 해설의 다양성을 기할 수는 있었으나, 비봉매표소까지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 등산로가 좁아 자연해설을 위한 적당한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천리안

천리안

사진 3-24. 구기계곡에서 조류 자연해설 중

사진 3-25. 비봉능선에서 찾은 세발버섯

3) 제 3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소귀천계곡 등산로를 따라 대동문까지 걸으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쪽동백나무는 잔가지의 허물이 벗겨져 있었으며, 노린재나무에는 짙은 쪽빛 열매가 달려있었다. 산박하 꽃도 볼 수 있었다. 713보에 찍은 참나무가 있었는데, 이 찍은 참나무 한 그루에는 미생물이 대략 350종 넘게 살고 있어 생태계 먹이사슬의 튼튼한 하층구조가 된다고 한다.

특히, 천이의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에서 볼 수 있는 까치박달을 발견한 것은 큰 수확이 아니었다 한다. 이 구간에서는 북한의 국화인 함박꽃나무도 관찰되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해설거리가 있어 자연해설을 위한 적절한 장소라고 의견을 모았다.

4) 제 4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백운매표소에서 하루재를 넘어 백운대피소까지가 4차 모니터링 구역이었다.

덩굴로 성장하는 다래나무에 열매가 보였다. 20~30년 전만 해도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시골아이들의 매혹적인 군것질거리였던, 그러나 지금은 자연상태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 열매가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다. 머느리밥풀꽃의 보라색 꽃도 피어있었고, 참회나무(붉은색 열매), 산딸나무, 까치박달나무, 야광나무 등의 열매가 가지가지로 맺혀있었다. 나무 열매를 주제로 자연해설을 하기 적당한 시기이다.

1593보에서 마가목을 관찰하였다. 마가목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관찰하기 매우 어려운 수종이다. 1958보에서는 가지가 붉은 색인 청시닥나무를 발견하였다.

이 구간은 다양한 식물수종이 분포되어 있고 주변 분위기가 좋아 자연해설 장소로 적당하다. 야생 조류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천리안

천리안

사진 3-26. 모니터링시 자주 관찰된 머느리밥풀 사진 3-27.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하는 자원활동
꽃 가

5) 제 5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소귀천계곡을 따라 걸으면서 도선사에서 용암문을 거쳐 백운대피소까지 걸었다.

참회나무(붉은색 열매)가 보여 참빗살나무와 비교할 수 있었다. 도선사 주변에는 소나무(적송)가 많이 자라고 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식물에서 향기가 나는 산초나무, 생강나무, 박하나무, 누리장 나무 등을 볼 수 있었다. 도태중인 밤나무도 관찰되었고, 786보에서는 뱀을 관찰하였다. 작살나무의 보라색 열매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탐방로가 완만하고 소나무(사찰림), 밤나무 숲 등이 있어 숲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해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6) 제 6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정릉 탐방안내소에서 정릉매표소, 정릉계곡을 지나 보국문을 거쳐 칼바위능선까지가 9월 25일의 모니터링 구간이었다.

이제 9월말이어서 그런지 나무들의 열매가 많이 보였다. 팔배나무의 열매는 작은 콩 크기이고 작살나무는 코발트빛의 열매를, 누리장나무는 보랏빛, 산사나무는 붉은색 열매를 달고 있다. 때죽나무도 열매를 달고 있었다. 애기똥풀(노란색꽃), 꽃향유, 벌개미취 등은 꽃도 관찰되었다. 참나무들이 다양하여 비교설명을 하기 좋다. (갈참, 신갈, 떡갈, 상수리 등)

이 구간은 ‘가을의 열매’를 주제로 한 자연해설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사진 3-28. 정릉 탐방안내소

사진 3-29. 누리장나무 열매

7) 제 7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10월 2일, 형제봉 매표소에서 시작된 모니터링은 형제봉 능선을 거쳐 대성문, 성능을 지나 청수천 밑까지 이어졌다.

소나무 등 중간키나무와 큰키나무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게 관찰되었다. 때죽나무와 팔배나무의 열매를 구분하고 특징을 살펴볼 수도 있다. 약간 변형된 모습의 참빗살나무 열매(붉은색)는 벌어져 씨앗이 보이며, 가지는 푸르다. 리기다소나무의 솔방울은 소나무 솔방울과 다른 점을 보이는데, 그것은 솔방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구간의 식생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며, 동고비, 박새, 어치, 곤줄박이 등의 조류도 다수 출현하였다.

8) 제 8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오늘의 모니터링 구간은 구천계곡이다.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구천계곡을 따라 가면서 넓적바위까

지 구간을 모니터링하였다.

참죽나무, 보리수나무, 조록싸리나무, 난티개암나무, 조팝나무, 가죽나무 등이 생육증임을 확인하였다. 뽕나무의 잎을 따면 우유빛의 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누리장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받침에 받쳐있는 코발트색의 씨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이 구간에는 광릉수목원에서 볼 수 있는 광릉물푸레나무가 살고 있었다. 수피가 흑처럼 우둘우둘한 신나무가 관찰되며, 잣나무, 은행나무, 회양목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다.

이 구간은 다양한 식생이 분포되어 자연해설을 하기에 용이한 조건이다. 잣나무, 회양목 등의 조림 지역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뽕나무가 많고 고비도 있다.

9) 제 9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10월도 중순에 접어든 16일. 냉골매표소에서 내원사를 거쳐 정릉매표소까지 이른바 냉골탐방로가 오늘의 대상지역이다.

때죽나무, 참나무 종류와 노박덩굴, 단풍나무 종류가 살고 있었다. 극상림에서 볼 수 있는 서어나무가 생육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봉선의 붉은 꽃과 노란색의 달맞이꽃도 볼 수 있다. 투구꽃이 바위 밑에 살고 있으며, 보라색의 꽃향유는 무리를 지어 피어있다. 청가시덩굴의 열매는 아직 익지 않아 푸른빛을 띤다.

전체적인 생태계 해설이 가능한 구간이며 나무들과의 접근이 용이한 점이 장점이다. 다양한 식생 덕분에 새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구간의 뽕나무와 대추나무 등은 병충해의 침입을 받고 있다.

10) 제 10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화계사 매표소에서 빨래골 매표소까지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화계사 매표소 입구에는 수령이 415년이나 된 보호수 느티나무가 눈에 띈다. 회나무, 산딸나무, 왕버들나무, 개수나무, 은단풍나무 등이 살고 있다. 고욤나무의 열매는 노랗게 익어 그 맛을 참가자들이 음미할 수도 있었다. 가죽나무에는 3개에서 많으면 5개까지의 열매가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암 주변을 관찰한 결과, 보리수나무와 고욤나무 등 식생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직박구리, 쇠박새, 동고비 등의 조류가 관찰되었다. 화계사 사찰 주변의 소나무들이 왕성한 성장을 보이는 게 특기할 만 하다. 이 구간은 특히 사찰 주변에서 역사, 문화유적에 대한 해설도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천리안

천리안

사진 3-30. 청가시덩굴

사진 3-31. 화계사 탐방로 중 활동가능 공간

11) 제 11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진관사 매표소에서 시작하여 진관사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비봉을 거쳐 탕춘대 능선을 지나 탕춘 매표소까지 모니터링하였다.

진관사 사찰 경내와 주변에 염주나무가 있어 독특한 모양의 열매를 관찰할 수가 있다. 소나무, 서어나무, 굴참나무, 가래나무, 함박꽃나무 등이 생육중이다. 고욤나무, 산딸나무, 청미래덩굴, 난티개암 나무 등 유실수도 많아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5850보 주변에 아주 많은 개체수의 새들이 관찰된다(동고비 등).

진관사에서 사찰에 대한 해설을 진행할 수 있으며 탐방로와 진입로가 완만하여 자연해설이 용이한 지역이 많다는 것이 이 구간의 장점이다.

천리안

슬라이드

사진 3-32. 진관사 담에서 고욤나무 관찰

사진 3-33. 진관사계곡 경관

12) 제 12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도봉매표소에서 출발하여 보문능선을 주로 살피면서 우이암을 거쳐 무수골 매표소까지 탐방하였다.

이 구간에는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해설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암석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어 바위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도봉사 주변에는 전나무, 섬잣나무, 메타세쿼이아와 향나무 등이 건강하게 생육중이며, 떡갈나무의 성장상태 역시 양호하였다. 무수골 탐방로 주변에는 노간주나무, 신갈나무, 물오리나무, 가막살나무, 팔배나무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열매를 보면서 관찰하기에 좋다.

이 구간에는 나무와 암석에 대한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해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무수골 매표소의 탐방로 바닥은 복원지역으로 돌이 깔려있어 탐방하기에도 편리하였다.

13) 제 13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원도봉계곡과 포대능선을 모니터링하였다. 원도봉 매표소 → 원도봉 계곡 → 포대능선 → 망월사 매표소까지의 구간이다.

오동나무가 많아 오동나무의 열매속 씨앗의 수를 헤아려 보면서 관찰하기 좋다. 단풍나무의 물이 들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단풍나무의 종류와 색깔 등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다.

씨가 말라 있어도 향이 짙게 나는 꽃향유의 냄새를 직접 맡아 볼 수 있다. 생강나무 가지의 눈을 보고 꽃눈과 잎눈을 비교, 확인하였다.

겨울을 나는 초본류의 겨울나기 모습을 보며 강한 생명력을 일깨워줄 수도 있을 듯 하다. 바위 위에 말라 붙어있는 이끼류에 물을 뿌려주면 다시 숨쉬며 살아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원도봉 계곡 주변에 수서생물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어 수서생물 해설과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이 구간의 특이 점이다.

14) 제 14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회룡사 매표소에서 시작하여 송추계곡, 송추분소를 지나 오봉매표소까지 모니터링하였다.

병꽃나무의 씨앗을 관찰하였고 작살나무의 보라색 열매를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생강나무의 지저분한 수피를 다른 나무의 수피와 비교하면서 꽃눈과 잎을 확인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과정이었다. 쪽동백나무는 잔가지가 이미 허물을 벗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다.

물오리나무, 왕버들나무, 붉나무, 함박꽃나무, 물푸레나무 등 서식하는 나무의 종류가 다양하다. 양서류, 파충류, 북한산의 새 등 해설판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자연해설이 용이하다.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나무들의 수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점들에서는 공동체 놀이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송추계곡 입구에 환경부에서 위해식물로 지정한 단풍잎돼지풀이 넓게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사진 3-34. 송추계곡 입구의 단풍잎돼지풀

사진 3-35. 송추계곡 입구 공원안내판

15) 제 15차 자연해설 모니터링

북한산성 매표소에서 북한산성계곡을 따라 올라가 보국문을 거쳐 정릉계곡으로 내려오는 구간이다.

북한산성 계곡에서 상·중하 지점을 지정하여 수서생물을 관찰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볼 수 있다. 그러한 비교 결과의 차이가 오염원(식당 등 상가의 산재) 등으로부터 기인함을 설명할 수 있다. 자연관찰로를 따라오르며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튼튼나무의 주변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주목나무는 조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인동의 열매도 관찰된다. 노적사 주변에 딱따구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딱따구리의 나무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북한산성 계곡에서는 수서생물에 대한 자연해설이 가능하다.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연해설을 진행할 공간의 확보가 쉽다. 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설도 삽입되면 해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연관찰로가 설치되어 있어 탐방자의 체험이 가능하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사진 3-36. 북한산성의 선정비군

사진 3-37. 북한산성계곡 상류의 모습

제4장 결론 및 제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소양과 현장 능력을 갖춘 자연해설가를 양성하고 실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자연적인 국립공원 탐방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은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 및 심화교육, 가을생태학교 운영, 자연해설 모니터링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집중연수 방식으로 진행된 ‘북한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연수’에는 강의와 실습, 답사, 시연 등의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다. 연수 참가자들이 여타의 자연 공간에서 지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었으므로 교육의 방향도 입문 과정을 거친 자연해설가들에 대한 현장 능력 강화에 맞춰 진행되었다. 연수 신청자는 18명이었고 평균 참여자는 15.5명이었다. 평균 86%의 참여율을 보여 강의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연해설가에게 요구되는 것이 단순한 실행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준비 및 실행, 평가의 전 과정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심화교육에서는 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근교의 자연학습장을 찾아 생태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그러나 학교 개강, 출퇴근 등의 이유로 선생님, 학생, 직장인 등은 심화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국립공원이라는 특화된 공간에서의 자연해설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후 자연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등으로 분화되어야 하며, 심화과정의 교육 방향은 기획 능력과 현장 적응력 고양, 특화된 공간에서의 해설 방법 연구 등으로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국립공원 가을생태학교’는 2002년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북한산성지역에서 총 8회에 걸쳐 12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북한산성 근처에 위치한 북한산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을생태학교는 그 기초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설정하고, 어린이들과 자연 속에서 관찰하고 느끼는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매회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체험활동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8권의 교재를 만들었다.

자연해설 모니터링은 2002년 8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15개 등산로에서 총 75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자연해설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등산로가 자연해설 장소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연해설을 기획할 때 어떠한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가한 자원활동가들은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애정과 함께 현장 활동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된 본 사업은 생태교육전문가·이동작가·자원활동 경험자·진행팀으로 구성된 ‘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중심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전망을 만들어갔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지역으로 국가는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을 포함한 20개 국립공원에 연간 2,000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아와서 국립공원은 생태적 수용력의 한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탐방객들은 공원의 자원을 보고, 느끼고, 즐기기 보다는 정상지향 산행과 관광, 물놀이 유희 등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다. 그런 까닭에, 성수기라 일컬어지는 봄, 여름, 가을 국립공원은 몸살을 앓는다.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이용하는 것은 국립공원 자원 보전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향상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국립공원 자연해설사업이 확대되고, 인력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연수에 함께했던 자연해설가의 일부는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소귀천과 정릉, 북한산성 지역에서 자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은 2003년에도 북한산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에서 활동할 자연해설가 양성과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은 생물 종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여가휴양의 공간이며,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자연문화유산이다.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현장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1993년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여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까지 자유롭게 보고, 느끼고 배우며 쉴 수 있는 곳으로 지키기 위하여 창립된 국립공원 전문 시민단체입니다. 주요한 활동은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 훼손실태 조사 및 연구활동, 자연보존형 지역개발을 위한 대안제시, 국제협력, 개발반대운동 등입니다. .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내

전화 02-961-6547, 팩스 02-964-0591

홈페이지 www.npcn.or.kr 이메일 np2001@chollian.net